

공동체 소식

미사 봉헌 안내

- 미사 예물을 봉헌시 봉헌자(이름 세례명), 지향자(이름, 세례명)를 정자로 써주십시오.
- 생미사, 위령미사 중에 동그라미로 표시를 해주십시오.
- 미사 지향자가 비신자일 경우 이름만 쓰시면 됩니다.(미사 중에 영혼이라 호칭합니다.)
- Check으로 예물 봉헌시 받는 사람은 KCC로 써주시면 됩니다.
- 미사 예물 금액을 봉투에 적어주십시오.
- 미사 예물은 전례부에서 본당(KCC)으로 입금합니다.

전례 상식

- 주일에 타지역에 있는 경우 근처 한인성당이나 미국성당에서 주일미사에 꼭 참례하시기 바랍니다.
- 주일미사 참례를 못할 경우 고해성사를 하시고 영성체 하셔야 합니다.
- 전례봉사자는 미사 참례전 고해성사로 몸과 마음의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 주일헌금은 자선행위가 아닙니다.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느님께서 무엇이 필요하시겠습니까? 일주일간 나에게 베풀어주신 은혜에 우리가 하느님께 드리는 감사 행위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의 정성을 보시는 것입니다.

8월 구역모임

- 1구역 - 3(토)일 오후 7시**, 정석원 라파엘 가정
12317 W 102nd St, Lenexa, KS 66215
- 2구역 - 16(토)일 오후 7시**, 이우석 프란치스코 가정
10604 E Sheley Rd, Independence, MO 64052
- 3구역 - 23(토)일 오후 6시 30분**, 김주연 세실리아 가정
6402 W 134th Ter, Leawood, KS 66209

2019 교무금 책정 가정(신앙생활봉헌서)

- *고맙습니다. 교무금은 매월 의무입니다.**
- 고영방 스테파노, 홍순익 마르티노, 정수한 베드로, 이영민 엘리사벳, 김태중 예레미야, 정석원 라파엘, 문석찬 요셉, 박계숙 박헬레나, 박옥희 헬레나, 강승호 아오스딩, 조지연 마리아, 박태주 로마노, 김정원 베드로, 차상욱 펠릭스, 김화년 요안나, 안병환 발렌티노, 김대연 요셉, 현교정 돈보스코, 박희영 카타리나, 김호원 요한, 조진환 베드로, 정연숙 막달레나, 차호섭 요셉, 김동술 세례자요한, 감영진 라파엘, 이우석 프란치스코, 천주영 에스델 (27가정)

전례 성가

	입 당	예 물	성 체	파 건
금 주	37	219	153	19
차 주	41	210	168	31

전례 봉사자 및 독서자

	해설자	제1독서, 제2독서
금 주	김시연(엘리사벳)	김병철(베네딕도) 김경희(스콜라스티카)
차 주	박태주(로마노)	문석찬(요셉) 백문주(엘리사벳)

주일미사 복사

	향복사	시종복사
금 주	차민서(임마누엘)	김정빈(바오로) 정예진(하나)
차 주	정예찬(미카엘)	김지안(요한) 김정원(안젤라)

헌금 봉사자

금 주	이우영(가브리엘), 차상욱(펠릭스)
차 주	김태중(예레미야), 강승호(아오스딩)

애찬 봉사자

금 주	5조: 김말자, 박계숙, 유계화, 김수연
차 주	6조: 문문주, 장유정, 김희진

미사 후 뒷정리에 함께 하는 아름다운 손을 하느님께서 기다리십니다.

- 8월 4일은 4구역 담당입니다.
- 매월 첫 주일 성당 지하 청소합니다.
- 매 주일미사 후 간단하게 뒷정리 합니다.
- 청소 담당은 편의상 구역을 나뉘었을 뿐 많은분들이 함께 해주시면 됩니다. 적극적인 협조 고맙습니다.

복자 정약중 아우구스티노 한인성당
Blessed Jeong, YakJong Augustine Korean Catholic Community

+미사시간

주 일: 11:00 AM
화/수요일: 7:30 PM
목 요 일: 10:00 AM
첫 토요일: 10:00 AM
(신심미사)

+고해성사

매 미사 30분전

+예비신자교리

주일 10:00 AM

천주교 캔사스 한인성당

복자 정약중 아우구스티노 한인성당

Blessed Jeong, YakJong Augustine Korean Catholic Community
9130 Pflumm Rd. Lenexa, KS 66215
나자렛 교육관: 8901 Haskins St. Lenexa, KS 66215
www.kckcatholic.org

주임신부 박종수 펠릭스
korean1481@gmail.com

회 장 고영방 스테파노
(913) 227-9040

총 무 박태주 로마노
(610) 212-9539

유아세례: 전례부에 신청

주일학교: 주일오전10시
나자렛관 (8월 25일)



오늘의 전례

오늘은 연중 제17주일입니다. 우리 구원자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께 바치는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신비를 밝혀 주시고 성령을 내려 주시어, 우리가 아버지께 신뢰심을 가지고 꾸준히 기도하며 아버지의 사랑을 누리게 해 주시기를 청합시다.

그림 묵상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청하여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너희가 얻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누구든지 청하는 이는 받고, 찾는 이는 얻고,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루카 11, 9-10

제 1 독 서 : 창세기의 말씀입니다. 18,20-32 <제가 아뢰다고 주님께서는 노여워하지 마십시오.>

화 답 송 : 

- ◎ 주님, 제가 부르짖던 날, 당신은 응답하셨나이다.
- 주님, 제 마음 다하여 당신을 찬송하나이다. 제 입의 말씀을 들어 주시기에, 천사들 앞에서 찬미 노래 부르나이다. 거룩한 성전 앞에 엮드리나이다. ◎
- 당신은 자애롭고 진실하시니, 당신 이름 찬송하나이다. 제가 부르짖던 날, 당신이 응답하시고, 저를 당당하게 세우시니, 제 영혼에 힘이 솟았나이다. ◎
- 주님은 높이 계셔도 낮은 이를 굽어보시고, 멀리셔도 교만한 자를 알아보시나이다. 제가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원수들의 분노 막아 저를 살리시나이다. 당신은 손을 뻗치시나이다. ◎
- 주님은 오른손으로 저를 구하시나이다.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리라! 주님, 당신 자애는 영원하시옵니다. 당신 손수 빛으신 것들 저버리지 마소서. ◎

제 2 독 서 : 사도 바오로의 콜로새서 말씀입니다. 2,12-14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모든 잘못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우리는 성령을 받아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네. 이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하느님께 “아빠! 아버지!” 하고 외치네.
- ◎ 알렐루야.

복 음 :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1,1-13

<청하여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생명의 말씀

주님의 기도를 바칠 때



오늘의 첫째 독서는 하느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을 벌하시기 위하여 그 주민들을 쓸어버리시려 하자 아브라함이 그들의 용서를 청하는 장면을 전합니다. 처음에는 의인 50명에서 시작하여 마지막에는 10명까지 그 숫자가 점점 줄어드는데, 아브라함은 마치 시장에서 장사하는 상인과 같은 모습으로 하느님과 대화합니다. 물론 우리는 그 모습에서 어떻게든 소돔과 고모라의 파멸을 막고 싶은 아브라함의 간절함을 읽어내야 하겠습니다.

둘째 독서에서 바오로는 십자가 사건을 대속의 의미로 해석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잘못을 없애 버리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그 부활은 하느님의 용서를 뜻한다는 것이 바오로의 해석입니다.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간절히 요청한 것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는 일정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타자의 죄에 대한 하느님의 용서를 위해 대신 간구하고 희생하였다는 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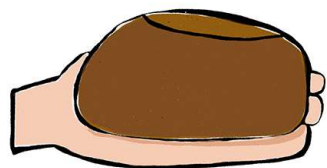
오늘의 복음에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청합니다. 그의 질문을 우리는 어떻게 알아들어야 할까요? 그는 올바른 기도에 대해 묻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어떻게 하면 하느님이 꼼짝없이 우리의 욕망을 채워주실지에 대해 묻고 있는 것일까요? 그에 대해 복음서는 명확히 밝히지는 않습니다만 그 질문에 대답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올바른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은 먼저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간절히 기도해야 함을 가르쳐 주시고, 마지막으로 성령을 청해야 함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을 통해 올바른 기도란 우리들의 욕망을 채우는 수단이라, 아버지의 뜻을 찾고 그 뜻에 따라 살아갈 용기를 청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듣게 됩니다. 이 깨달음을 누군가는 다음과 같이 전했습니다.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지 말아라, 세상일에만 빠져 있으면서. "우리"라고 하지 말아라, 너 혼자만 생각하며 살아가면서. "아버지"라고 하지 말아라, 아들딸로서 살지 않으면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라고 하지 말아라, 자기 이름을 빛내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면서.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라고 하지 말아라, 물질 만능의 나라를 원하면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어지소서"라고 하지 말아라, 내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면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라고 하지 말아라, 가난한 이들을 본체만체하면서. "저희에게 잘못된 이를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라고 하지 말아라, 누구에겐가 양심을 품고 있으면서.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라고 하지 말아라, 죄지를 기회를 찾아다니면서. "악에서 구하소서"라고 하지 말아라, 악을 보고도 아무런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서. "아멘"이라고 하지 말아라, 주님의 기도를 진정 나의 기도로 바치지 않으면서....

최승정 베네딕토 신부 | 가톨릭교리신학원 원장

그림으로 보는 복음묵상



누군가는 말로 마음을 전하고
누군가는 분위기로 마음을 전하지.

그런 것들은 다 거절할 수 있어.

하지만,
너는 눈빛으로 말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담긴 눈빛.
그래서 거절할 수 없단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당신께 청하는 이들에게
성령을 얼마나 더 잘 주시겠느냐?(루카 11,13)

임의준 신부 | 서울대교구 직장사목부 담당

말씀의 이삭

행복하여라 슬퍼하는 사람

미국에서 제법 성공한 사업가인 친구가 지난해 중학생 시절 은사 수녀님이 몹시 그림다고 했습니다. 제 오지랖이 발동, 몇 가지 단서를 가지고 수녀님 찾기에 나섰습니다. 친구의 가슴속에, 수십 년 세월에도 퇴색하지 않은 큰 사랑을 심어놓으신 그분이 저도 궁금했습니다. 마침내 부산 수녀원에 계신 은사님을 찾았습니다.

최근 그 친구에게 너무도 슬픈 일이 생겼습니다. 그녀를 걱정하는 친구들과 함께 서울행을 권유, 은사 수녀님을 뵈는 위로 여행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우연히도 우리는 수녀님의 금경축 기념일이 있는 때에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친구는 수녀님 품 안에서 아주 많이 울었습니다. "사회적 성취와 부는 얻었지만 늘 슬프고 외롭고 불행해요"라는 제자에게 수녀님은 '하느님 안에 살기'를 권하시며 사랑으로 기도해주셨습니다. 한때 개신교에 열심이었던 친구는 지금 자기가 가장 원망하는 대상이 '하느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왜, 하필 나에게?"라며 주님께 대들고 싶다고 했습니다. 수녀님은 그렇게 주님께 질문하라고 하셨습니다.

다음날 '명랑 수녀님' 이해인 수녀님과 만나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시집에 아기자기 스티커 장식과 덕담까지 더해져 정성스레 사인을 해주신 수녀님과 한 시간여 웃고 울다가, 돌아가며 시 낭송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목이 메어 낭송을 잊지 못하는 친구를 위해 수녀님은 이 시를 낭송해주셨습니다.

"슬픈 사람들에게 너무 큰 소리로 말하지 말아요.... 가

끔은 손잡아 주고 들키지 않게 꾸준히 기도해주세요.... 그가 잠시 웃으면 같이 웃어주고 대책 없이 울면 같이 울어주는 것도 위로입니다...'

그 시구는 하느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당부 같았습니다. 헤어질 때 친구는 은사 수녀님께 새로운 고백을 했습니다. "저에게도 사랑해주고 기도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라고. 미국으로 돌아가는 날 오전, 친구와 함께 미사에 참석 후 한 수녀님을 만났습니다. 수녀님은 '다 가진 것 같지만 텅 빈' 친구의 마음을 보시고 하느님을 찾으라고 당부하시며 기도해주셨습니다.

도착 다음 날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딱 한 번 빈적이 있던 한국 신부님께 1시간 30분 차를 몰아 달려갔다고 합니다. 쉬시는 날이었지만 신부님은 오랜 시간 친구의 얘기에 귀 기울여 주시고는 숙제를 내주셨다고 합니다. 마태오 복음서 5장을 일주일간 읽고 묵상한 다음 다시 만나자고. 일주일 후, 친구의 얘기에 이번엔 제 눈가가 흠뻑 젖었습니다.

"내 영혼이 평생을 갈구해온 행복이 바로 거기, 예수님의 산상수훈 안에 있더라. 내가 얼마나 가난한 사람이었는지... 마음이 이렇게 평화롭고 안정될 수가 없네. 여기저기 기웃거리며 멀고 먼 길을 돌아왔어. 이제는 내 아이도 가족도 사업도 남은 삶도 하느님께 맡길 수 있을 것 같아."

김미희 마리스텔라
'어머니들의 기도(Mothers Prayers)'

복음묵상

청하여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너희가 얻을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캘리그래피
서하영 아폴로니아